

광주 도심에 고층 아파트...일조권·조망권 분쟁 잇따라

호남대 쌍촌캠퍼스·농성동·화정동에 20~39층 규모 신축 광주시 "분쟁 예방 제도 개선...개발 계획 단계부터 검토"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분쟁이 잇따르는 등 각종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부지인 호남

대학교 쌍촌캠퍼스 인근 상무고등학교 측이 최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와 35m 떨어진 곳에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사들과 학

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는 10~34층(평균 18층), 16개 동 96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사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일단 법적 기준에는 부합하는 만큼 사업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피해 건물이 학교 급식실과 도서관이어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사업 시행사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측은 일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도 우려하고 있다.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주민들도 인근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와 45m 떨어진 곳에 146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이 신축될 예정으로, 최근 건축계획심사가 통과돼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 지정문화재인 서구 금곡동 병천사와 70m 떨어진 곳에도 고층 아파트 신축이 이뤄지고 있어 사찰 관계자들이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구 화정동에는 최고 39층, 243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에서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20층 이상 고층건물은 120여곳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지어졌다. 일조권·조망권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도시계획과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지역 17개 고속도 휴게소 깨끗해진다 '청결한 휴게소 만들기' 나서

전남도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청결한 고속도로 휴게소' 만들기에 나선다. 전남 시·군도 함께한다.

전남지역에는 서해안선, 무안광주선 등 모두 6개 노선 고속도로에 총 17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휴게소는 1995년 민영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지난 한 해 전남지역 고속도로 통행 차량은 8500만대로 하루 평균 2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올 초엔 코로나 19 여파로 잠시 주춤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적잖은 관광객이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둘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청결한 휴게소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를 협조 요청하는 등 청결한 휴게소 만들기에 공을 쏟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처음으로 보는 지역의 얼굴"이라며 "청결한 휴게소를 유지하여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청정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7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및 광주시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사회' 및 KDJ민주인권평화포럼 개막식이 열렸다. /광주시 제공

광주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민주인권포럼·전시회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 리더십 조영 온라인 대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되돌아보는 민주인권평화포럼과 전시회가 개막했다.

광주시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과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설훈·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민주화운동을 9개 주제로 구성된 민주장정 120년 전시관을 찾아 동학농민혁명부터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살펴봤다.

5·18민주화운동 전시관에서는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진압되던 1980년 5월 27일 새벽 방송을 한 박영순씨 이야기를 가상현실로 다룬 콘텐츠를 체험하며 의미를 되새겼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박명립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대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리더십과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5·18에서 민주주의 이상을 위한 시민의 헌신과 노력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과 세계의 눈으로 본 5·18과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김홍길·송갑석·김두관 의원이 '한국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전시회는 11월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우피해 광주시민 돕자" 전국서 도움의 손길

이안로드 비말차단 마스크 기부 고양 장어미시가 장어탕 1000인분 기탁

호우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세탁차량 1대로 서구 벽진동 일대에서 세탁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횡성군 자원봉사센터는 19일부터 20일까지 수해복구 릴레이 세탁봉사를 한다.

앞서 14일에는 ㈜이안로드에서 마스크 1만장을, 장어미시가 장어탕 1000인분을 기탁했다. 서울소재 투자중개기업 ㈜이안로드는 이날 계열사 ㈜이안마스크에서 생산하는 비말차단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권대욱 ㈜이안로드 대표는 "유례없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말차단 마스크를 기부했다"며 "하루 빨리 수해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침수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

달된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장어미시가는 광주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황칠풍천장어탕 1000인분(500팩)을 기탁했다. 김상규 장어미시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장어탕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기부배경을 밝혔다.

장어탕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호우 피해액은 1400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광주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피해는 지난 15일 기준 6417건, 1421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로 등 공공시설 522건 441억4400여만원, 민간 주택 등 사유시설 5895건, 980억600만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2545건(567억807만원), 북구 1930건(597억7495만원), 남구 972건(90억2156만원), 서구 711건(82억8635만원), 동구 233건(83억961만원)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10월 31일까지 1만9000명 대상 지역 보건정책 기초 자료 활용

전남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202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 중인 국가승인통계다. 지난 16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

정된 대상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142개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수칙 준수관련 지표가 추가됐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조사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 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성조숙증클리닉 서정클리닉
서정한의원
seojung.com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본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에서 약 60m /라마다 서울호텔 맞은편